

에이치시티, 매출액 166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 기록

▶ 상반기 누적 매출액 337억원(YoY +11.4%)

▶ 시험인증 분야 다각화로 매출성장세 견조한 흐름 유지

<2022-08-09> 시험인증·교정산업 선도기업 에이치시티(072990, 대표이사 허봉재)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 166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을 기록했다고 9일 잠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년대비(YoY) 매출액은 9.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3% 감소했으며, 상반기 누적실적은 337억원, 영업이익 47억원으로 전년대비(YoY) 매출액은 11.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6.7% 감소한 실적이다.

회사는 “2분기 정보통신 제품의 시험수주 지연과 시험 제품믹스 변화로 2분기 매출성장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상반기 누적 매출액 337억원 달성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1.4%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방산업의 신규제품의 개발 및 시험수주 지연으로 실적이 시장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수주 및 진행중인 영업상황을 감안시 3분기에는 실적 만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금리인상, 물가상승, 환율상승 등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도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보통신 분야 외에도 배터리, 방산 부분의 매출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이치시티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호서대학교와 CRO합작법인 설립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달 21일 발기인 총회를 마치고 설립등기 절차를 진행 중으로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에이치시티 허봉재 대표이사는 “전방산업들의 꾸준한 성장과 힘입어 에이치시티도 성장을 이어갈 것”이며, “금리인상 등 외부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도 비임상시험 사업진출뿐 아니라 배터리 및 방산 시험인증 사업 확장 등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모색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 자료문의: (주)에이치시티 박현범 부장 (031-645-6308)